

二雅堂 李重夏의 自靖詩 研究

이은영*

|| 차례 ||

1. 머리말
2. 관료로서의 이력과 자정적 삶
3. 國難에 대한 詩的 對應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그동안 외교 능력가로 인정받아온 二雅堂 李重夏(1846~1917)의 문학적 자질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관료출신 이아당은 경술국치 전부터 일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경술국치 직후 70세를 바라보던 그는 은사금을 거부하고 양평 집으로 돌아가 은둔자정하며 엄격하게 일제와 거리를 두고 살다 여생을 마쳤다. 연로한 나이로 직접적 저항에 나설 수 없던 그는 당대 지식인들이 평생 익힌 신념에 따라 선택한 ‘處變三事’ 가운데 ‘自靖遂志’를 택했다. 그리고 그는 작품을 통해 자정적 삶을 고수한 정신과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을 드러냈다. 젊어서 豪猛한 기운을 품고 있던 이아당의 시는 國難이라는 傷心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화한 표현 없이 담백한 언어로 변화되었다. 그로인해 그의 시는 『이아당집』 序文에서 밝혔듯이 ‘平淡典雅’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저항정신을 드러낸 시에서는 여전히 호맹한 기운이 엿보인다. 이처럼 문학적 역량이 풍부했던 이아당은 시대의 변화와 작품에 따라 자신의 정신을 담은 詩語를 함께 변화시키면서 문학적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시인이다.

주제어 : 二雅堂, 李重夏, 二雅堂集, 自靖詩, 恥齋, 李範世, 일제강점기

1. 머리말

二雅堂 李重夏(1846~1917)는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의 관료출신이다. 그에게는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나라의 영토는 줄일 수 없다.[吾頭可斷, 國疆不可縮]” 이는 이아당이 土門勘界使로서 청나라 관료들과 만났을 때 국토 수호에 대한 다짐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한 말이다. 한 마디로 그의 성격과 외교 실무 능력을 알린 문장으로, 더 이상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게 만든 문장이다. 이런 일례를 통해 이아당은 지금까지 주로 외교 능력가로서만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詩題만 총 459수에 달하는 詩로만 구성된 『二雅堂集』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적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선행연구는 懷人詩와 관련된 1편¹⁾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아당의 문학적 자질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 텍스트는 『이아당집』²⁾을 기저로 해서 먼저 이아당의 관료로서의 이력과 자정적 삶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이아당의 國難에 대한 詩的 대응에 대해 경술국치 전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료로서의 이력과 자정적 삶

2.1 관료로서의 이력

李重夏의 자는 厚卿이고, 호는 二雅堂·坦齋·圭堂³⁾·二堂⁴⁾이다. 본관은 全州

1) 박종훈, 「二雅堂 李重夏의 懷人詩 一考」, 『태동고전연구』 제30집,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2013.
 2) 李重夏, 『二雅堂集』(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1975)
 3) 이왕무, 「19세기말 조선의 강역인식 변화」, 『역사와 실학』 제37집, 역사실학회, 2008, 127면 참조.
 4) 李南珪, 『修堂集』 권1, 「李二堂(重夏)侍郎家會吟榴花」; 金允植, 『雲養集』 권6, 「箕城觀察使李二堂(重夏)寄書餽香菸一櫃以詩謝之(乙巳)」 등을 통해 이중하가 二堂으로도

이며, 세종의 第五子인 廣平大君 李璵의 후손이다. 고조는 弘文館應教를 지냈으며 文學과 清白으로 추앙 받은 李顯謨이며,⁵⁾ 증조는 僉中樞를 지낸 李義福이고, 조부는 內部協辦에 증직된 李老淵이다. 부친은 延豐縣監을 지낸 李寅植인데 이어당이 귀해지면서 內部大臣에 증직되었다.⁶⁾

1846년(헌종 12) 11월 9일 경기도 楊平에서 태어났다.⁷⁾ 1882년(고종 19) 增廣試에 壯元으로 뽑힌 지 6개월 만에 典籍에 제수된데 이어 弘文館修撰에 오르고 議政府公事·奉常寺正 등을 역임하였으며, 1884년(고종 21)에는 慶尙道京試官이 되었다.⁸⁾ 1885년(고종 22)에는 품계는 通政大夫에 오르고, 工曹參議에 제수되었다가 安邊府使에 부임한지 오래지 않아 土門勘界의 명을 받았다.⁹⁾ 그리고 같은 해 9월, 1차 土門勘界使로서 土門 땅의 국경 문제로 파견된 청나라 관원 德玉·賈元桂·秦煥¹⁰⁾ 등을 맞이하러 가게 되었다.¹¹⁾

불렸음을 알 수 있다.

- 5) 『영조실록』 36권, 영조 9년(1733) 12월 13일 기사 <청백리를 뽑는 것, 농상을 권장하는 것 등 옛 제도를 수거하도록 하다> 참조.
- 6)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3면 “系出璿潢世宗第五子廣平大君諱璵之後也. 廣平早世 生永順君諱溥, 擢登俊試策精忠敵愾勳. 九傳而有諱濟平安監司, 才兼文武望重一時, 是生諱顯謨弘文館應教, 文學清白爲世所推, 於府君爲五世祖也. 曾祖諱義福僉中樞, 祖諱老淵贈內部協辦, 考諱寅植延豐縣監贈內部大臣, 以府君貴也.”
- 7)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3면에 “府君以憲宗十三年丙午十一月九日生”으로 되어 있다. 헌종 13년은 1847년이고, 병오년은 1846년이다. 이어당의 아들 이범세가 기록하면서 부친이 태어난 해의 간지를 잘 못 썼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846년으로 서술하였다.
- 8)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4면 “壬午擢增廣試壯元, 以已陞六直授典籍, 尋拜弘文館修撰, 後陞應教, 遍歷侍講院司書·文學·中學校授·司憲府掌令·兵曹正郎·軍國衙門主事·議政府公事·奉常寺正. 甲申爲慶尙道京試官.”
- 9)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4면 “乙酉北廟尊爵禮時, 以相禮勞陞通政拜工曹參議, 尋移安邊府使位任未幾, 承土門勘界之命.”
- 10) 청나라 관료 진영의 이름이 李重夏의 문집 「先考妣行狀[李範世]」에는 秦煥으로, 「和吉林派員秦子阜(瑛)」에는 秦瑛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秦瑛으로, 이중하의 『勘界使臚錄』의 「白頭山日記」에는 秦煥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하의 저서 『감계사등록』에 따라 秦煥으로 서술하였다.
- 11) 『고종실록』 22권, 1885년(고종 22) 7월 30일 기사 <토문 땅의 국경 문제로 이중하와 조창식을 파견하여 협상 처리하도록 하다> 참조.

당시 이아당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한 무한 책임감으로 고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이아당이 을유(1885)년 9월 임금의 명을 받들고 토문감계의 일로 출발하면서 지은 시 「乙酉九月奉命發土門勘界之行」¹²⁾을 통해서 확인된다.

鳳綸飛上五雲中	황제의 조서[鳳綸] 오색구름 속으로 날아오르더니
九月星槎北塞通	9월에 사신의 행렬[星槎] 북쪽 변방을 통과했네
三百年來難辨界	3백 년 이래의 경계선 분별하기 어려울 테고
二千里外不同風	이천 리 밖의 바람은 (서울과) 같지 않으리라
周旋只切臣才短	주선에 정성을 다하려 하나 나의 재주 부족하고
委寄其何聖眷隆	모든 것을 위임한 성상의 은혜 융숭하네
懷役從宵不遑寐	일 생각에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건만
角聲催發曉城東	뿔피리 소리 출발을 재촉하고 성 동쪽 밝아오네

이처럼 고뇌 속에 떠난 이증하는 청나라 관원들과 함께 백두산정계비와 土門江地界를 심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아당은 중국 관원 진영 등과 함께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 두만강의 근원을 두루 답사한 후 달포를 논쟁했으나 끝내 결말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¹³⁾ 그로부터 2년 뒤인 1887년(고종 24) 3월, 德源府使 재임시절 2차 토문감계사로서 백두산을 다녀왔다.¹⁴⁾

이때 이아당은 떠나기에 앞서 국경이란 강토와 백성들에게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착오가 있게 되면 후에 자신이 주륙을 당한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 토문감계사에 능력 있는 인물로 차하할 것을 청했다. 이는 자신이 갑자기 중임을 맡아 경계 문제에 소홀하여 실수를 할까봐 서였다. 그리고 이아당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12) 李重夏, 『이아당문집』 <北塞騰墨> 「乙酉九月奉命發土門勘界之行」 67면.
 13) 『고종실록』 24권, 1887년(고종 24) 3월 4일 기사 <덕원 부사 이증하가 상소를 올려 경계 문제를 보고하다> 참조.
 14) 『고종실록』 24권, 1887년(고종 24) 1월 16일 기사 <이증하에게 도문계지에서 길을 떠나 기일을 정하여 회감하게 하다> 참조.

“옛날의 경계로 말한다면 수원(水源)이 일치하지 않고 목책(木柵)도 다 썩어서 실제의 장소가 옛 문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옳게 확인하기가 오늘날에는 난처합니다. …… (변경문제는) 묘당(廟堂)에서 충분히 의논하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의 경계에 대해서는 도지(圖誌)를 살펴 고증하고 유민들에 대해서는 사리를 잘 헤아려 표획(標劃)할 곳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안착시킬 곳은 이쪽 땅인가 저쪽 땅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토의하고 확정하여 다시 참작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¹⁵⁾

위의 상소는 이아당이 1차 토문감계사 때 청나라 관원과 국경 문제에 대해 달포를 논쟁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고종은 이아당에게 신중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아당에게 말기는 것이므로 사양하지 말고 가서 일을 처리하라는 비답을 내렸다.¹⁶⁾ 이에 이아당은 막중한 임무를 맡아 다시 토문감계사로 떠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아당이 2차 토문감계사로 나갈 때는 위의 상소 내용대로 국경에 대한 圖誌를 살펴 고증할 자료들을 찾아 갖고 갔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아당은 당시의 일을 『勘界使臚錄』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이에 더해 그는 백두산 정상까지 다녀온 일을 『감계사등록』 上卷에 「白頭山日記」¹⁷⁾라는 제목으로 남겼다.

그 후 이아당은 1892년(고종 27)에는 충청도암행어사로 활약하였으며,¹⁸⁾ 1894년(고종 29) 三南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外務部協辦과 工曹參判을 겸임하며 牙山에 상륙한 淸國軍의 迎接官으로 활약했다.¹⁹⁾ 또 寧海와

15) 『고종실록』 24권, 1887년(고종 24) 3월 4일 기사 <덕원 부사 이중하가 상소를 올려 경계 문제를 보고하다> 번역 재인용.

16) 『고종실록』 24권, 1887년(고종 24) 3월 4일 기사 <덕원 부사 이중하가 상소를 올려 경계 문제를 보고하다> 참조.

17) 李重夏, 『勘界使臚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887) 「白頭山日記」, 103-116면.

18)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7면 “庚寅歲除日承密旨, 爲忠淸道暗行御史.”

19)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8면 “甲午三南東學黨起, 攻陷州郡戕殺長吏, 全國震動, 王師屢出無功, 乃請援于淸, 淸帥葉志超聶士成等率大兵駕海而來, 朝廷陞府君外務協辦兼帶工曹參判, 命迎接淸陣, 府君趨程到牙山迎接.”

永川의 宣撫使兼按覈使로서 동학농민운동을 鎮撫하는데 힘썼다.²⁰⁾ 이어서 1895년(고종 30)에는 大邱府觀察使를 지냈고,²¹⁾ 1903년(광무 7)에는 外部協辦兼文獻備考纂輯堂上을 지냈다.²²⁾ 1904년(광무 8)부터 1905년까지 平安南道觀察使兼按撫使를 역임하는 동안에는 한반도 북부에서 전쟁의 혼란을 열던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그 지역 백성들을 괴롭히자 이를 저지시키는 한편, 고을 백성들을 위로하는 등의 선정을 베풀며,²³⁾ 관료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을사늑약이 이루어지자 당시 나라가 망했다고 인식한 의식 있는 선비들은 순국, 은둔, 저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이때 이아당은 순국도 여의치 않고, 연로한 나이로 직접적 저항에 나서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했던 만큼 은둔자정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1905년(광무 9)과 1906년(광무 10)에 거듭 경복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 관직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자정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1906년 侍講院副詹事에 이어 掌隸院卿에 제수되었다. 1907년(융희 1)에는 太醫院卿에 제수되는데 이어 다시 장례원경에 제수되었다. 이때 이아당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廟社殿宮 享祀 대부분을 정지시키고 사용하는 물건을 아껴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당국자와 의견이 합치되지 않자 그만두고 물러났다.²⁴⁾

20)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9면 “嶺南東學餘黨充斥州郡騷然, 寧海永川民起擾逐長吏, 迺命府君爲宣撫使兼按覈兩郡.”

21)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9면 “乙未四月拜中樞院議官, 尋移大邱府觀察使.”

22)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1면 “癸卯拜外部協辦兼文獻備考纂輯之役.”

23)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1면 “甲辰移拜平安南道觀察使兼按覈使. 時日俄構釁, 俄騎出沒境內, 日兵從西路陸續前進, 迎送運輸, 所經列郡, 疲於奔命, 民不安居. 朝廷擇嫻於外交, 熟悉地方情形者, 乃有是命也. 府君到府日陣所求煩苛, 黽勉應酬間, 又按行列郡, 撫諭人民, 使得安接.”

24)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2면 “乙巳移拜慶北觀察使, 疏辭乃免. 丙午拜制度局議定官, 尋移慶北觀察使, 又辭不赴. 既而敘勳三等八卦章, 拜侍講院副詹事, 以懿孝殿尊爵禮, 時禮貌官勞, 晉秩資憲, 拜掌隸院卿. 丁未拜太醫院卿, 既而上禋位彤弓, 有尊奉都監以提調勞, 陞正憲勳敘二等八卦章, 又拜掌隸院卿. 時廟社殿宮享祀欲多停廢, 所需痛加節減, 府君與當路者議不合, 遂辭免.”

그리고 1909년(융희 3)에는 덕수궁에 거처하던 고종의 명으로 경비 200金을 하사 받아²⁵⁾ 일본을 유람하고 돌아왔다.²⁶⁾ 같은 해에 一進會가 한일합병을 주장하자 閔泳昭 등과 함께 國是遊說團을 조직한 후, 12월 5일 西大門 내의 圓覺社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일진회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반격을 가하였다.²⁷⁾ 또 1910년에는 규장각제학으로서 한일합병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이처럼 평탄하게 관료생활을 하던 이아당은 을사늑약 후부터 자정적 삶을 지향하였다. 자정이란 『서경』 <微子>의 “自靖, 人自獻于先王, 我不顧行遯.”에서 나온 말로, 나라가 망했을 때 은둔을 통해 지조를 지켜 신하가 욕됨이 없이 先王에게 충성을 바치는 의리를 뜻한다. 그러나 그의 능력을 알아본 조정의 거듭된 관직 제수로 인해 이아당은 자신의 의지대로 은둔을 통한 자정적 삶만 추구할 수는 없었다. 아직은 대한제국 국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명목상에 불과한 황제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2 자정적 삶

대세는 이미 기울어 나라는 망해버렸다. 경술국치를 기점으로 국호 또한 사라졌다. 관료는 일반 학자들과는 달리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 익힌 이아당에게 있어 우리의 황제가 다스리지 않는 일제 치하에서 관료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경술국치 후에는 은사금을 거부하고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은둔의 행보를 통해 그는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아당이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내려준 3천圓의 은사금 공채 증서를 되돌

25) 李重夏, 『二雅堂集』 권3, <東游小藁> 「己酉閏二月二十一日, 諸紳士發日東之行, (臣)奉德壽宮內旨, 辭教懇至, 仍下行資二百金, 不敢以老病辭」 199면.

26)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2면 “己酉以太皇帝命遊覽日本而還.”

27) <國民演說會員의 集冊>(警秘 제4153-1)(1909.12.07.) 참조.(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려 보낸²⁸⁾ 사실은 아래 『신한민보』(1910.11.23.) 기사 <이중하씨의 절개>를 통해서 확인된다.

●<리듬하씨의절기> “정이품리듬하씨는이왕년부협관과대구관찰노성망이잇는지상인티금번에미국공척증서를분급흐는디리씨는그증서를환퇴호앗다더라”²⁹⁾

이처럼 내부협관과 대구관찰사로서 명망이 있던 정2품의 이아당은 일제가 내려준 매국공채증서, 곧 은사금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당시 이아당이 은사금을 받지 않은 사실은 아래 1911년의 『순종실록부록』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前 奎章閣提學 李重夏에게 贊侍를 보내어 작년 10월 1일 恩賜金辭令書를 祇受하라는 뜻으로 勅諭하도록 명하였다. 이중하는 分義상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³⁰⁾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 은사금을 거부한 이아당은 1911년 음력 3월 16일 가솔들을 모두 거느리고 양평 집으로 돌아갔다. 아래는 당시 이아당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 「辛亥三月既望, 余挈眷將歸于楊平公山新舍, 周發羸島, 鄭晏坡·朴退石·高惠舫(永周)·尹小湖(相衍)·徐初園(相助)·鄭茂亭·朴久庵(齊斌)·鄭東谷(寅昇), 携酒來別于江上」³¹⁾이다.

一出都門若靡依 한 번 도성 문을 나가면 그리울 것이건만

28)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3면 “庚戌拜奎章閣提學, 及國變有所謂恩賜金三千兩, 辭不受.”

29) 『신한민보』(1910.11.23.) <이중하씨의 절개>(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30) 『순종실록부록』 순종 4년(1911) 2월 18일 양력 기사 <이중하에게 은사금을 받을 것을 명하였으나 이중하는 받지 않다> 번역 재인용.

31) 李重夏, 『이아당문집』 권3 <東游小藁> 「辛亥三月既望, 余挈眷將歸于楊平公山新舍, 周發羸島, 鄭晏坡·朴退石·高惠舫(永周)·尹小湖(相衍)·徐初園(相助)·鄭茂亭·朴久庵(齊斌)·鄭東谷(寅昇), 携酒來別于江上」 212면.

不堪回首望宮闈 차마 고개 돌려 궁궐을 바라볼 수가 없네
 故鄉早擬休官去 고향은 일찍이 관직에서 물러나 가는 곳이라 여겼건만
 末路那知失國歸 어찌 알았으랴, 말년에 나라 잃고 돌아갈 줄을
 三角峯遙雲黯黯 삼각산 봉우리 아득한데 구름마저 어둑하고
 九陵洞寂草菲菲 九陵³²⁾ 마을 적막한데 풀마저 시들하네
 故人携酒來江上 벗들이 술을 들고 강가로 왔건만
 握手無言淚滿衣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물로 옷깃만 흠뻑 적시네

이아당 뿐 아니라 누구나 고향이란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낼 안식처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아당은 말년에 나라가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당시 이아당에게 있어 고향은 안식처가 아니고, 피난처가 되어 버렸다. 친구들과 눈물바람으로 이별을 하고 돌아간 고향에서 이아당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나무를 심거나 책을 읽고 때때로 들판의 노인들과 함께 農桑을 이야기하며 지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아당이 경술국치 후 동료들과 柞蠶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 그러나 이아당이 작잠회사 설립에 참여했다는 자료의 소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³⁵⁾ 경술국치 후 이아당의 자정적 삶은 아래 그의 행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하루는 東京 賞勳局에서 合併記念章을 보내오자 분연히 글을 지어 이르기를 “아무개[이중하]는 대한제국의 옛 신하로서 나이가 일흔에 가까운데 나라가 망한 것으로써 그 기념장을 차고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義로써 차마하지 못할 바이다.”라고 운운하고는 마침내 그 기념장을 함께 반납하였다.³⁶⁾

32) 구릉(九陵) :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東九陵을 가리킨다. 동구릉에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健元陵을 비롯한 9개의 능이 있다.
 33)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3면 “庚戌. …… 翌年遂挈眷歸楊平田舍, 不問世事, 種樹看書, 時與野老話農桑.”
 34) 박중훈, 「二雅堂 李重夏의 懷人詩 一考」, 『태동고전연구』 제30집,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2013, 116면 각주 11) 참조.
 35) 작잠회사 관련 자료는 『皇城新聞』 1910년 1월 20일 기사,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4일과 22일 기사, 조선의 『官報』 1910년 2월 9일과 10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중하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작잠회사 설립 또한 경술국치 후가 아닌, 경술국치 전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아당은 나라가 망한 것으로써 주는 기념장을 차고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옛 신하된 자의 義로써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반납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글과 함께 합병기념장을 賞勳局으로 돌려보냈다. 친일파들이 일제에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바빠 돌아다니는 행적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이아당은 아들 恥齋 李範世(1874~1940)가 추석 때 시골 풍속에 따라 조촐하게 준비한 술과 떡을 보고는 아들을 불러 “오늘 누리는 바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하고 오래도록 탄식을 했던 인물이다.³⁷⁾

이처럼 경술국치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옛 신하로서의 본분으로 절개를 지키며 세상일과 인연을 끊은 채 일제와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자정적 삶을 살던 이아당은 1917년 8월 11일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묘소는 양평 葛山面 倉垆里 葛谷 先塋 甲坐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³⁸⁾

이아당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부인 大司成 曹雲承의 딸 貞夫人 昌寧 曹氏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문과 급제 후 秘書院丞을 지냈으나 경술국치 후 이아당과 함께 양평으로 돌아간 이범세이고, 두 딸은 承文院副正字 鄭寅衡과 趙鋼夏에게 출가시켰다. 그 밖에 趙暖夏에게 출가시킨 庶女가 있다.³⁹⁾

이아당의 遺稿로는 아들 이범세가 지은 「序文」과 부모의 행장을 함께 엮어 지은 「先考妣行狀」을 덧붙여 1975년 李興種이 3권 1책 영인본으로 간행한

36)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3면 “一日自東京賞勳局, 齎送合併記念章, 府君奮然作書曰: “某以韓國舊臣, 年迫七旬, 以亡國爲榮身佩其章, 義所不忍.” 云云遂并其章繳還.”

37)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3면 “嘗於秋夕隨鄉俗略具酒餅, 府君招不肖曰: “以今日而所享太過.” 獻歎者久之.”

38)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5면 “丁巳八月十一日考終, 壽七十二. 葬于楊平葛山面倉垆里葛谷先塋甲坐之原.”

39) 李重夏, 『二雅堂集』 「先考妣行狀[李範世]」 15-16면 “先妣昌寧曹氏, 大司成諱雲承女, 丁未八月十日生, 封貞夫人從府君貴也. 育一男二女, 男範世文科秘書院丞, 女長適鄭寅衡文科承文院副正字, 次適趙鋼夏, 庶女適趙暖夏.”

詩集 『二雅堂集』이 있다. 그리고 土門勘界使로서 1885년(고종 22) 9월과 1887년(고종 24)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나라와 감계회담을 가진 후 회담 진행 경과 등을 기록한 『勘界使臚錄』, 1899년(광무 3) 음력 3월 강원도 삼척부 蘆洞의 李成桂의 高祖 穆祖皇考陵과 東山里의 穆祖皇妣陵을 奉審한 과정을 기록한 『東瀛紀行』, 이성계의 고조인 穆祖의 父母의 墓에 대한 기록을 모은 『三陟兩墓誌』가 있다. 그밖에 청군이 동학군을 토벌하려고 출동했을 때의 기록인 『南征日記』,⁴⁰⁾ 관찰사 시절 경험한 각종 폐단 및 일본의 京義鐵道 부설에 따른 문제점과 제국주의 열강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기록한 『箕府報鈔』⁴¹⁾ 등이 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이아당집』에 대한 언급 없이 이아당이 『圭堂文集』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다. 圭堂은 이아당의 또 다른 호인데, 현재 『규당문집』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아당의 文으로 확인되는 글은 姜瑋의 『古歡堂收艸』 <古歡堂收艸文稿本傳>에 실린 강위에 대한 인물전인 「本傳」, 朴文富의 『雲谷遺集』 序文인 「雲谷遺集序」 등 몇 편뿐이다.

3. 國難에 대한 詩的 對應

이아당은 토문감계사로서 청나라 관료에게 “吾頭可斷, 國疆不可縮.”을 외쳤던 인물이다. 영토도 줄일 수 없었던 그가 일제의 주권침탈을 그냥 받아들였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그가 국난에 대한 감정을 詩的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자정적 삶의 행보를 보인 경술국치를 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경술국치 전

이아당은 1882년부터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아래는 그가 벼슬하기 전의

40) 이왕무, 위의 논문, 2008, 131면 참조.

41) 이왕무, 앞의 논문, 2008, 132-133면 참조.

어느 날 달밤에 景山 趙秉翊 · 荷亭 呂圭亨 · 寧齋 李建昌 · 葆堂 徐丙壽와 함께 읊은 시 「月夜與趙景山(秉翊)荷亭寧齋徐葆堂(丙壽)共吟」⁴²⁾이다.

月明宿鳥自相呼	달 밝으니 잠들었던 새 (아침인줄 알고) 서로 부르고
林靄溪烟淡欲無	숲 아지랑이와 시내 안개는 열어져 사라지려 하네
一道槐陰連巷陌	한 길에 회나무 그림자는 골목마다 연이어 있고
滿庭荇影似江湖	뜰 가득한 마름 그림자는江湖 같네
披襟使我清勘瀉	흉금을 터놓으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縱酒隨君醉且扶	خم뺍 마셔 그대 따라 취하면 또 부축해주네
日出也應還逶迤	해가 뜨면 응당 돌아갔다 다시 모일지언정
人間此夜是蓬壺	인간세상 오늘밤 蓬壺 ⁴³⁾ 가 되었네

위의 시는 젊은 이아당의 호방함을 알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아당의 文詞에 대해 雲養 金允植(1835~1922)은 “약관의 나이에 文詞를 전공하였는데, 시속의 여론이 왕.양이라 추대했다네[弱冠攻文詞, 時論推王楊]”⁴⁴⁾라고 하였다. 왕.양은 初唐 四傑 중 王勃과 楊炯을 가리킨다. 이규보는 陳子昂, 李白, 杜甫, 李翰, 李邕와 초당 사걸의 작품에 대해 “汪洋하고 闊肆하여 河淮를 기울이고 큰 바다를 넘어뜨린 듯 그 豪孟한 기운을 구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⁴⁵⁾ 이를 통해 젊은 이아당의 文詞는 왕발과 양형처럼 호맹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관직에 나아간 이아당은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며 평탄한 관료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신의 관료생활의 평탄함과는 달리 國難은 표면화되어 갔다.

일제는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 8월부터 1896년 2월까지 노비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혁안을 내걸고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중 조선인들에게 가장

42) 李重夏, 『二雅堂集』 권1 <南社墨緣> 「月夜與趙景山(秉翊)荷亭寧齋徐葆堂(丙壽)共吟」 49면.

43) 봉호(蓬壺) : 蓬萊 즉 고대 전설 속의 바닷속의 선산(仙山)을 말한다.

44) 金允植, 『雲養續集』(국립중앙도서관본, 1930) 권1 「坦齋李尙書挽」 124면.

45) 김창경, 「李奎報의 初唐詩 認識」, 『중국어문논총』 제36집, 中國語文研究會, 2008, 98면 참조.

큰 충격을 준 것은 단발령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터럭을 자르는 일은 신체의 훼손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효’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는 곧 인륜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에 대해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崔益鉉은 “머리터럭을 보존하다 죽을지언정 터럭을 깎고 살지는 않겠다.[寧存髮而死, 不去髮而生]”⁴⁶⁾고 까지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단발령에 강한 반발을 한 것과 달리 관직에 있던 이아당은 조정의 명에 따라 머리를 깎아야만 했다. 아래는 이아당이 머리터럭을 깎던 날의 심정을 읊은 「剃髮日述懷」⁴⁷⁾이다.

臣分惟君命 신하의 본분은 오직 임금의 명을 따르는 데 있으니
 敢憐一介身 감히 일개 몸 하나를 가엾게 여기리오만
 九原他日恨 九泉에서 훗날 한스러울 것은
 剃髮見先人 머리터럭 깎은 채 先祖들을 뵈는 것이라네(2수 중 제1수)

利國毛何惜 나라를 이롭게 한다면 터럭 아껴 무엇하랴만
 傷時淚自垂 時節을 상심하자니 눈물이 절로 흐르네
 禿頭安所適 깎은 머리로 어디를 가든
 永抱此生悲 이 생의 슬픔 길이 안고 가야 하리(2수 중 제2수)

1수에서 이아당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신하의 본분에 따라 머리터럭을 깎았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머리터럭을 깎은 것은 안타까울 것 없으나, 죽은 후 그 모습으로 선조들을 뵈는 것을 생각하니 한스럽기 짝이 없음에 대해 토로하였다. 2수에서는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머리터럭 찜은 얼마든지 깎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아당은 자신이 머리터럭을 깎은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나라에 도움도 안 되는데

46) 崔益鉉, 『勉庵集』 부록 제3권 「年譜」 참조.

47) 李重夏, 『二雅堂集』 권2 <嶠南賸墨(乙酉以觀察莅任大邱時)> 「剃髮日述懷」 134면. 『二雅堂集』 133면의 <嶠南賸墨(乙酉以觀察莅任大邱時)>에 쓰인 乙酉年은 1885년이다. 을유년이 己酉年의 오기라면 1909년이 된다. 그런데 단발령이 내려진 것은 1895년이고, 이아당이 대구부관찰사로 부임한 것 또한 1895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을유년을 을미년의 오기로 보고 1895년으로 서술하였다.

머리를 깎아야만 하는 시대적 현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그 모습으로 어디를 가든 자신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머리터럭을 깎은 슬픔을 오래도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아당은 자신의 단발에 대해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단발을 할 당시 대구부관찰사로 재임하고 있던 이아당은 조정의 명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백성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을미개혁에 반대하는 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단발령 철폐와 함께 친일내각 및 일본군 축출을 목표로 관청이나 일본인 거주지 등을 공격하였다. 이때 친일내각은 서울을 수비하던 군부대를 출동시켜 전국 의병을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자 의병들은 단발령을 강행하려는 군수나 관찰사 경무관 등에게 처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를 입혔다.⁴⁸⁾ 그러나 당시 이중하는 타 지역 관리들과는 달리 대구 백성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지 않았다. 그로인해 그는 의병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았다. 이는 평소 이중하가 善政을 펼쳐 민심을 얻은 이유도 있지만 백성들의 머리터럭을 강제로 깎게 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⁴⁹⁾

이러한 일례를 통해서 이아당은 신하로서 임금의 명에 따라 단발을 했지만 일제 주도의 단발령이라는 행정집행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직 관료로서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일제에 대한 최대의 저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은둔을 통해 先王에게 충성의 의리를 실천하고자 자정적 삶을 지향하던 이아당은 현실적으로 자정적 삶을 살 수 없자 을사늑약 때 순절한 우국지사들의 행적을 읊는 것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냈다. 아래는 그 중 한 편으로 을사늑약 때 순절한 崔益鉉(1833~1906)에 대한 輓詩「輓崔勉庵」⁵⁰⁾이다.

48) 이은영, 「20세기 초 유교지식인의 망명과 한문학 -서간도 망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면 참조.

49) 黃玆, 『黃玆全集』(아세아문화사, 1978) 下, 「梅泉野錄」 卷之六, 隆熙四年庚戌(四月) 1108면 “遣守令荆頭者往往見殺. 大邱觀察使李重夏, 撫諭境內, 素得衆心, 是時又不勒削, 故民怨之, 重夏嬰城固守, 以待京援.”

50) 李重夏, 『二雅堂集』 권2, <西游雜咏> 「輓崔勉庵」 182면.

白首輪丹悵 흰머리에 붉은 충정으로
 期扶大廈傾 나라[大廈]가 기우는 것 붙잡기를 기약했네
 桂薑餘老氣 桂薑은 오래 묵을수록 기운이 넘쳐나고
 松柏見寒天 松柏은 날씨가 추워져야 드러난다네
 國免無人耻 나라에 사람 없는 부끄러움 면토록 하였으니
 名應有口傳 명성은 응당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리라
 吾儕寧不愧 우리들은 어찌자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苟祿到殘年 구차히 녹만 축내며 여생을 보내고 있나

최익현은 議政府贊政을 지냈던 인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지자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며 수백 명의 유림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제에 잡혀 쓰시마 섬으로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인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너희 곡식으로 목숨을 구하겠는가.”⁵¹⁾ 하고는 마침내 굶어죽었다.

위의 시 首聯에서 말한 白首는 1833년 생인 최익현이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할 때의 나이가 이미 70을 넘겼기 때문에 한 말이다. 頷聯의 桂薑은 肉桂와 生薑을 가리키는데, 두 식물은 묵을수록 맛이 더욱 매워지기 때문에 늙을수록 더욱 강직해지는 사람에 비유된다. 따라서 이아당은 나이가 많은데도 강직한 것이 계강을 닮았다는 말로 연로한 최익현의 행실을 극찬하였다. 또 松柏은 추운 날씨가 되어야 푸름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국난을 당한 시기에 최익현의 丹心이 확연하게 드러났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더해 이아당은 최익현이 절개를 지키다 순국하면서 조선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그 명성 응당 구전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아당이 자신을 포함한 관료들을 보자니 나라가 망해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구차히 녹만 축내면서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편히 보낼까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위의 시는 이아당의 자기반성이자 최익현의 일체에 대한 저항정신을 높이려는 의도로 지은 작품이다.

51) 盧相益, 『大韓亡國史列傳』 <崔益鉉> “日人餉之拒曰：“我豈食爾粟求生乎.” 遂餓而死.”

그런가 하면 이아당은 閔泳煥(1861~1905)의 죽음에 대해서도 輓詩「閔忠正公(泳煥)輓」⁵²⁾을 읊었다.

忠臣自刎慟何堪	충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애통함 어찌 견디랴
一刎猶難況再三	한 번 찌르기도 어렵건만 하물면 두세 번에 있어서랴
天下淚零諸義士	천하에 눈물 떨구는 義士들이
我東喚起幾英男	우리나라 환기시킨 영웅이 몇이더냐
諫留露尸離華屋	간쟁하고 기다리다 주검으로 이승[華屋]을 떠나면서
心暴遺書在血衫	마음을 드러낸 유서와 피 묻은 적삼을 남겼네
誤國肝脾應墜膽	나라를 그르친 인간들[肝脾] 응당 간담을 떨어뜨리고
中天星日正昭森	중천에서 해와 별로 정히 밝게 빛나리라(2수 중 제2수)

민영환은 1905년에 議政府參政에 제수되었으나 일본인의 요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侍從武官長으로 옮겨 제수되었다. 그 후 민영환은 趙秉世와 諸臣들과 함께 을사오적의 처단을 청하는 연명 상소를 수차례 올린 일로 구속되었다 풀려났다. 풀려난 다음날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본가로 돌아왔다. 이때 민영환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민영환은 잠을 자겠다며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시중군 한 명만 남도록 하였다. 그리고 먼동이 틀 무렵 민영환은 시중군에게 세숫물을 떠오라며 내보냈다. 시중군이 나가자 즉시 문을 닫아걸고 칼을 뽑아 스스로를 찔렀다. 그런데 칼이 짧아 깊이 찌를 수 없자 칼을 더욱 세게 쥐고는 목부터 배까지 마구 찌르기를 그치지 않아 流血로 방 안이 가득차면서 죽고 말았다. 시중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민영환은 여전히 칼을 손에 세게 쥐고 있어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았다.⁵³⁾ 당시 민영환의 옷깃 속에서 2통의 유서가 나왔다. 한 통은 국민들에게 永訣을 고하는 것이고, 한 통은 각국의 公使들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임금이 민영환의 죽음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영의정에 추증하고 忠

52) 李重夏, 『二雅堂集』 권3, <부제 없음> 「閔忠正公(泳煥)輓」 195면.
 53) 盧相益, 위의 책, <崔益鉉> “泳煥移館隣舍, 揮傍人出曰: “我要睡” 惟一僮在側, 味爽謂僮曰: “出取盥水來” 僮出卽鎖戶, 抽刀自刺, 刀短不能深入, 更緊握, 自頸至腹亂刺不已, 流血滿房乃死. 僮聞哀苦聲, 破戶而入, 視刀尚在手勃勃如生.”

正 시호를 내려주고 旌閭를 세우도록 하였다.⁵⁴⁾ 그가 자결한 방에 피 묻은 적삼을 걸어두었는데, 그가 죽은 지 8개월쯤 뒤에 그 방에서 대나무가 자랐다.

首聯에서 두세 번에 걸쳐 찢렸다는 것은 바로 민영환이 자신의 몸을 수차례 찢러 자결한 것을 가리킨다. 벼슬을 한 사람은 군신간의 의리가 있어서 나라가 망하면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신간의 의리를 실천한 민영환의 죽음을 드높이면서 이아당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같은 관료로서 살아있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대비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아당은 민영환의 자결로 나라를 그르친 인간들의 간담이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민영환의 영혼이 하늘의 해와 별로 빛나면서 대한제국의 앞날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런 이아당은 1909년 덕수궁에 기거하던 고종황제의 명으로 신사유람단에 참여하여 일본을 가게 되었다. 당시 고종이 이아당에게 여비 200원을 내려주자 그에 대한 심정을 이아당은 아래의 시 「己酉閏二月二十一日, 諸紳士發日東之行, (臣)奉德壽宮內旨, 辭教懇至, 仍下行資二百金, 不敢以老病辭」⁵⁵⁾로 읊었다.

日東三島海中開	일본 三島는 바다 한가운데로 열려 있는데
帝有恩言汝往哉	황제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가보라 하시네
宸念猶勤記簪履	황제는 여전히 (내가) 벼슬에 있다고 기억하고 계시니
微軀敢惜報涓埃	미천한 몸으로 감히 은혜 갚기를 아끼랴
孤帆烟雨憐三老	돛단배와 안개비도 致仕한 늙은이[三老] ⁵⁶⁾ 가없어 하건만
大陸風潮杳九垓	대륙의 풍조는 하늘 끝[九垓]처럼 아득하기만 하네
却愧纏蹄千里志	부끄럽구나, 천리마의 뜻을 품고 마구간에서 머뭇거리더니
旅燈懷役獨書灰	여관 등불 아래서 일 생각에 홀로 灰 위에 글자 끼적임이

54) 盧相益, 앞의 책, <崔益鉉> “有遺書二片在衣衿中, 一訣告國民, 一函告各公使也. 上聞泳煥死, 震悼贈上相諡忠正, 且命旌閭.”

55) 李重夏, 『二雅堂集』 권3, <東游小藁> 「己酉閏二月二十一日, 諸紳士發日東之行, (臣)奉德壽宮內旨, 辭教懇至, 仍下行資二百金, 不敢以老病辭」 199면.

56) 삼로(三老) : 연로하고 많은 일을 겪은 致仕한 사람[年老更事致仕者]을 가리킨다.

일본의 三島가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아당의 도착지가 도쿄였던 것으로 보아 도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현 미시마 시[三島市]로 추정된다. 이곳 지형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1909년과 1910년에 조선통감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 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인을 대상으로 ‘日本觀光團’ 행사가 실시되었다. 이때 이아당은 장례원경 직을 사양하고 물러나 있다가 1909년의 1차 일본관광단에 참여하였다. 당시 일본관광단에 전·현직 관료 및 유생을 비롯해 신문기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과는 달리 이아당은 덕수궁의 고종황제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⁵⁷⁾ 身病을 무릅쓰고 참여하게 되었다.

일본관광단의 대외적 표명은 관광이었으나, 실상은 일본을 관광한 후 통감부의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되었다. 1차 일본관광단은 귀국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일본에서 견문한 상공업 발달이나 일본의 문명국 상황, 대한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英親王(1897~1970)이 일본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 일본관광단이 현지인들의 환대를 받았다는 등의 상황에 대해 유세하며 철저하게 일본에게 이용당했다. 그러나 고종의 유지로 일본을 다녀온 이아당은 관광단의 유세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다.⁵⁸⁾ 오히려 이를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심만 더욱 커졌을 뿐이다.

그밖에 경술국치 전 이아당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평안도 관찰사와 안무사를 겸하는 동안 일본군이 주둔할 때 대한제국에서 동원한 물자와 인력에 대한 보상 문제, 병참기지를 두기 위한 軍用地 명목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 조처한 문제, 경의철도부설에서 정차장 부지로 책정을 철회하고 면적을 줄이거나 移設하는 문제, 철도 부설 노역에 동원되는 인부의 雇價 증액, 철로 수선비 징수 등 지방관으로서 일제로부터 대한제국 백성들의 안전과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였다.⁵⁹⁾ 이에 더해 이아당은 1906년 7

57) 이왕무, 「이중하의 생애와 국내 정치 활동」, 『‘이중하’와 21세기 한국외교』(외교통상부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 학회 발표지), 2011, 14면 참조.

58) 이왕무, 앞의 논문, 2011, 14면 참조.

59) 이왕무, 앞의 논문, 2011, 13면 참조.

월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通信院과 상의하지 않고 서울 남대문 밖에 전신주를 제멋대로 세우자 일본공사를 힐책하고 철거하도록 하였다.⁶⁰⁾ 특히 러일전쟁 전후로 일제의 대한제국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고위 관료들을 회유 및 압박을 가하면서 대부분의 관료들은 방관 또는 협조를 하였으나, 이아당은 단 한번도 일제의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⁶¹⁾

3.2 경술국치 후

1909년 9월 安重根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고 같은 해 12월 李在明이 李完用을 저격하면서 일제에 대한 한인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3월 일제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대한제국 약탈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가 대한제국에 들어오면서 한일합병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경찰권마저 빼앗아간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시작했다. 그 후 국내의 모든 옥내외 집회 금지령이 내려지고, 신문 잡지 등의 언론은 일제로부터 검열과 통제를 심하게 받았다. 8월 22일 고종과 순종의 거처 및 서울 안팎의 요지에 약 2,600여 명의 무장 일본군과 헌병들을 배치한 상태에서 합병조약이 체결되었고, 한인들의 반대를 우려하여 합병조약 발표는 8월 29일에서야 이루어졌다. 마침내 순종이 양위조서를 내리면서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바뀌고, 데라우치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에 올랐다. 이로써 대한제국 성립 18년 만이자, 519년 역사의 조선왕조는 끝이 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⁶²⁾

아래는 이아당이 경술국치일에 읊은 시 「庚戌七月二十五日」⁶³⁾이다.

朝來看邸報 아침에 邸報를 보니
 驚地失靑邱 줄지에 우리나라[靑邱]를 잃었다네

60) 이왕무, 앞의 논문, 2011, 13면 참조.

61) 이왕무, 앞의 논문, 2011, 13-14면 참조.

62) 이은영, 위의 박사학위논문, 2012, 13면 참조.

63) 李重夏, 『二雅堂集』 권3 <東游小藁> 「庚戌七月二十五日」 209면.

曾期山若礪	일찍이 산이 바뀌어 솥돌처럼 되기[泰山若礪]를 기약했건만
詎料壑移舟	어찌 알았으랴 골짜기로 배를 옮겨 두었을 줄을
徒死知無補	공연한 죽음 보탬 못 되는 걸 알지만
苟生不亦羞	구차한 삶 또한 부끄럽지 않겠는가
惘然空握爪	망연자실하여 부질없이 손톱을 움켜보지만
覆水更難收	엎어진 물은 다시 거두기 어렵다네

제목의 경술년 7월 25일은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8월 29일이다. 바로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날이다.

首聯의 邸報란 조선시대 서울에서 지방 고을로 띄우는 연락 보고 문서이다. 그 문서에 우리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다. 頷聯에 산이 바뀌어 솥돌처럼 된다는 말은 『史記』 <高祖功臣侯者年表>에 나오는 말로 漢나라 高祖 劉邦이 개국 공신들을 책봉하면서 “황하가 띠처럼 되고, 태산이 솥돌같이 될 때까지, 나라가 영원히 편안하여 이에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할 것이다[使河如帶, 泰山若礪, 國家永寧, 爰及苗裔]”라는 뜻이다. 그리고 골짜기로 배를 옮겨두게 되었다는 말은 『莊子』 <大宗師>에 나오는 말로 “무릇 골짜기에 배를 감추고 못 속에 산을 감쳐놓고는 견고하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한밤에 힘이 센 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한다.[夫藏舟於壑, 藏山於澤, 謂之固矣. 然而夜半有力者負之而走, 昧者不知也.]”는 뜻이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개국 공신들을 책봉할 때는 조선이 영원할 것을 기약하였는데, 지금 이처럼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세상일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이아당은 언급한 것이다. 頸聯에서 이아당은 공연한 죽음도 나라에 보탬이 못되지만 구차하게 사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아당의 내적 갈등이 엿보인다. 尾聯에서 이아당은 나라를 잃음에 망연자실하여 주먹을 움켜 보지만 엎어진 물 다시 거두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임을 고백하고 있다.

당시 합병조약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 각계각층 사람들은 치욕과 울분을 토해내며 잇따라 순절함으로써 일제에 저항의지를 드러냈다.⁶⁴⁾ 경술국치 후 자

64) 이은영, 위의 박사학위논문, 2012, 13면 참조.

정적 삶을 실천하던 이아당은 경술국치 전과 마찬가지로 순절한 우국지사들에 대해 읊으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자신과 대비시키며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아래는 그 중 한 편으로 금산군수 洪範植(1871~1910)이 목을 매고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읊은 시 「錦山守洪範植自縊殉節追聞悲感作三絶」⁶⁵⁾이다.

讓國公傳一紙文 나라 양도한다는 공문서 한 장 전해졌으나
 滿廷袖手若無聞 온 조정의 신하들 팔짱 끼고 못 들은 척하였네
 祖宗五百年臣子 조종의 오백년에 신하는
 惟有錦山洪使君 오직 금산의 홍 使君뿐이네(3수 중 제1수)

新令催宣電字翻 新令 선포 재촉하는 전보 날아들었으나
 此書何忍揭官門 이 글을 어찌 차마 관문에 걸리오
 熱血沸腔何處洒 속에서 들끓는 뜨거운 피 어느 곳에 흘뿌리랴
 一條纒帛報君恩 한 가닥 비단으로 목을 매어 임금의 은혜 갚았네
 (3수 중 제2수)

홍범식은 1907년 전라북도 泰仁郡守 시절 봉기한 의병들을 일제의 체포망으로 부터 보호해주었고, 1909년 금산군수 시절에는 善政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인물이다.

제1수에는 홍범식이 경술국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결한 사실이 실려 있다. 당시 나라를 양도한다는 공문서가 왔는데 다른 관료들은 못들은 척 하면서 제 살길을 찾느라 바쁜 가운데 홍범식이 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아당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신하는 오직 금산군수 홍범식 한 사람 뿐이라고 하였다. 제2수에서는 홍범식이 목을 맨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일제가 한일합병이 되었다는 新令을 반포할 것을 재촉하는 문서를 받아들고 차마 관문에 내걸 수 없었기 때문에 홍범식은 자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홍범식은 칼로 자결을 하고자 했으나 일본 땅이 되어버린 곳에는

65) 李重夏, 『二雅堂集』 권3 <東游小藁> 「錦山守洪範植自縊殉節追聞悲感作三絶」 209면.

자신의 피를 뿌리고 싶지 않아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결을 했음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俞吉濬(1856~1914)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은 시 「聞俞樂堂(吉濬)沒遙挽一詩」⁶⁶⁾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不死至今生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면서
恥爲溝瀆諒	溝瀆의 신의 ⁶⁷⁾ 를 부끄럽게 여겼네
中途天奪速	중간에 하늘이 빨리도 앗아 가니
嗚呼竟何望	아아, 끝내 무엇을 바라라
齋志嗟乖運	품은 뜻은 아! 운명과 어그러졌으나
潔身見素養	깨끗한 몸가짐은 평소의 수양일지니
江廬燕居深	강가 오두막에서 한가히 거처하며
十載坐北向	십년동안 북향을 하고 앉았었네
英靈應不泯	英靈은 응당 泯沒되지 않고
氣作山河壯	精氣는 山河[나라]를 壯大하게 하리라

유길준은 朴趾源의 손자인 曠齋 朴珪壽의 문하에서 수학한 인물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후 金弘集 내각에서 內部大臣을 지냈으며 俄館播遷 후 일본으로 망명을 떠났던 인물이다.

1,2구에서 언급한 溝瀆의 신의를 부끄럽게 여겼다는 말은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그에게는 친일파라는 이름이 붙어 다녔으나 자결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훗날의 일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말이다. 3,4구에서는 유길준이 비교적 이른 나이인 59세에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5,6구에서 언급한 깨끗한 몸가짐이란 유길준이 망명 중이던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로 양위를 하고 정미7조약까지 체결되자 이에

66) 李重夏, 『二雅堂集』 권3 <麥叟漫吟> 「聞俞樂堂(吉濬)沒遙挽一詩」 259면.
 67) 구독(溝瀆)의 신의 : 孔子가 일찍이 管仲이 처음 패했을 때 죽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르기를 “어찌 필부필부들이 작은 신의를 지키고자 도랑에서 목매어 죽어서 알아줄 이가 없게 되는 것과 같이 하겠는가.[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전하여 필부필부의 작은 신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등 완강히 반대한 일과 순종의 특사로 풀려나 환국하였는데 당시 일본 망명자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관직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는 유길준이 유일함을 뜻한다. 평생의 품은 뜻이란 교육사업 쪽에 뜻을 펼치기 위해 유길준이 國民經濟會와 桂山學校 설립을 통해 국민계몽운동에 앞장서고, 興土團을 조직하고 교사양성 기관인 사범학교를 설립한 일을 가리킨다. 운명과 어그러졌다는 말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일제가 내려주는 작위를 거부하고 조선의 주권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경술국치를 당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병을 얻어 생을 마감하였음을 뜻한다.

7,8구에서 10년 동안 北向을 했다는 말은 유길준이 정미7조약이 체결된 1907년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대략 10년 동안 임금을 향한 충심으로 살았다는 뜻이다. 9,10구에서는 비록 유길준은 죽었지만 그의 죽은 영령이 생전에 품고 있던 주권회복의 뜻을 펼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바라는 이아당의 희망을 드러내었다.

아래는 이아당 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李相高(1870~1917)이 1917년 3월 니콜리스크에서 병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 「聞李舜五病沒于殊域愴惜久之因成四絕」⁶⁸⁾이다.

坐視國亡寧苟生	앉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 보면서 어찌 구차하게 살랴
包胥重繭誓存荊	申包胥의 발이 부르텄기에[重繭] 荊州를 보존하였다네
列邦視瘠皆充耳	열방은 越視秦瘠하며 모두 귀를 막았건만
血淚十年歐亞程	혈루를 머금고 10년간 유라시아 떠돌았네(4수 중 제3수)

舜五는 이상설의 字이다. 이상설은 고종의 특사로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李儁과 함께 파견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때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상설 등은 외교권이 없는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평화회의 입장자체를 거부당하자 각국을 떠돌며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68) 李重夏, 『二雅堂集』 권3 <麥叟漫吟> 「聞李舜五病沒于殊域愴惜久之因成四絕」 270면.

망명정부를 설립하였다. 이아당은 그런 이상설이 망명지에서 병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슬프고 애석한 마음에 위의 시를 지었다.

시에서 언급한 申包胥의 발이 부르짖기에 초나라 수도 荊州가 보존되었다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초나라 대부 신포서가 초나라 왕이 몽진을 떠나게 되자 秦나라로 가서 구원병을 청했는데 진나라가 거절하자 대궐 뜰에서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구원병을 청했다. 이에 진나라 袁公이 그의 정성에 탄복하여 구원병을 보내주어 마침내 오나라를 물리치고 초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다는 고사에서 온 것이다. 이는 신포서가 손발에 굳은살이 생기도록 나라를 위해 애쓴 덕에 초나라가 보존되었다는 말이다. 결과는 다를지언정 이아당은 이상설이 10년 동안 유라시아를 떠돈 이유 또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신포서의 노고와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越나라 사람이 秦나라 사람 살찌고 여윈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것[越視秦瘠]처럼 대한제국의 독립을 외치고 다니는 이상설의 행보에 귀를 막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그런 이상설은 분하고 한스러움을 가슴에 담은 채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他國에서 병사하였다. 이아당 또한 이상설이 병사한지 오래지 않아 생을 마감하면서 두 사람 모두 국권회복을 보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이아당의 자정적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은 일제 치하 때 만들어진 床石의 “有韓正憲大夫掌隸院卿完山李公重夏之墓, 配貞夫人昌寧 曹氏祔左” 글자 가운데 당시 전직 관료 및 지방 유림들의 무덤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한제국을 뜻하는 ‘韓’자가 쓰여있는 것을 통해 사후에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⁶⁹⁾

IV. 맺음말

이아당은 을사늑약 전 관료생활을 할 때는 일제의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

69) 이왕무, 위의 논문, 2011, 15면 참조.

로 일관하며 살았고, 을사늑약 후에는 계속된 관직 제수로 자정적 삶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경술국치 후에는 은사금을 거부하고 양평 집으로 돌아가 일제와 엄격하게 거리를 두며 은둔자정을 하였다.

이러한 이아당의 경술국치 전 국난에 대한 시적 대응은 관직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현실적으로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못한 그는 은둔을 통한 충성의 의리를 선왕에게 바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국난에 대한 시적 대응을 함에 있어 국난이 일어난 것에 대한 관료로서의 책임의식을 통감하는 자기반성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경술국치 후 국난에 대한 시적 대응은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고향으로 돌아가 일제와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살던 그는 국난에 대한 시적 대응을 함에 있어 경술국치 전보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자결 또는 병사한 인물들에 더욱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아당은 경술국치 전과는 달리 경술국치 후 자결 또는 병사한 인물들이 대한제국의 앞날에 서광을 비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젊은 시절 호맹한 기운을 품고 있던 이아당의 문사는 국난을 겪으면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담백한 언어로 풀어내면서 불가피하게 아들 이범세가 『이아당집』 序文에서 밝혔듯이 ‘平淡典雅’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저항정신을 드러낸 시에서는 ‘평담전야’한 가운데 호맹한 기운이 엿보인다. 이처럼 문학적 역량이 풍부했던 이아당은 시대의 변화와 작품에 따라 자신의 정신을 담은 詩語를 함께 변화시키면서 문학적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시인이었다.

다만 그의 문학적 사상은 그가 지은 文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가 지은 文으로 밝혀진 작품은 한 손에 꼽고, 그 중에는 그의 문학적 사상을 밝혀줄 만한 작품이 없다. 이아당이 지은 文의 발굴과 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제로 미뤄둔다.

[ABSTRACT]

A Study on the Self-cleaning Poems of Yiadang Jung-ha Lee

Lee, Eunyoung

This paper is about the literary talent of Yiadang Jung-ha Lee known as his ability of the diplomacy. Yiadang standed against Japan even before the Gyeongsulgukchi. Yiadang returned to his house in Yang-peong and died in there refusing all bribes or contacts from Japan after Gyeongsulgukchi. He who could not resist directly because of his old age, chose keeping honor quietly in the three actions to respond to changes following the belief of elites at that time. He revealed the spirit of clean life and the will of resist against Japan with his literature. His poems show clear words without excessive adjectives in the era of lost country. Therefore, his poems become 'Peaceful and elegant mind' itself as the introduction of 『Yiadang-jip』 said. But bravery is still in his poems showing the spirit of resist. With his literature talent, Yiadang revealed his gift changing the words in poems following the times.

Key Words : Yiadang, Jung-ha Lee, Yiadang-jip, self-cleaning poems, Chi-jae, Bum-se Lee, Japanese Occupation Period

참고문헌

□ 기본자료

李重夏, 『二雅堂集』(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1975)

金允植, 『雲養續集』(국립중앙도서관본, 1930)

盧相益, 『大韓亡國史列傳』

李南珪, 『修堂集』

崔益鉉, 『勉庵集』

黃 玹, 『黃玹全集』(아세아문화사, 1978)

『朝鮮王朝實錄』(영조, 고종, 순종)

□ 논문

김창경, 「李奎報의 初唐詩 認識」, 『중국어문논총』 제36집, 中國語文研究會, 2008. 93-114면.

박중훈, 「二雅堂 李重夏의 懷人詩 一考」, 『태동고전연구』 제30집, 翰林大學校 泰東古典 研究所, 2013. 111-136면.

이왕무, 「19세기말 조선의 강역인식 변화」, 『역사와 실학』 제37집, 역사실학회, 2008.12. 125-175면.

_____, 「이중하의 생애와 국내 정치 활동」, 『‘이중하’와 21세기 한국외교』(외교통상부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 학회 발표지), 2011.12. 7-33면.

이은영, 「20세기 초 유교지식인의 망명과 한문학 -서간도 망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학교박사학위논문, 2012.08. 11-13면.

정영길, 「효 사상과 한국문학의 상관성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27호, 국제언어문학 회, 2013.07. 127-151면

□ 기타 자료

<國民演說會員의 집합>(1909.12.07.)(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官報』(1910.02.09./02.10.)(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대한매일신보』(1910.02.04./02.22.)(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mediagaon.or.kr>))

『신한민보』(1910.11.23.)(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皇城新聞』(1910.01.20.)(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이 논문은 2016년 06월 30일 접수되어 07월 29일까지 심사받아 08월 5일 게재 확정됨.